<합격수기>

12학번 현빛○○

1. 나의 대학 시절

대학교와 연결되는 고등학교의 생활에서 무언가 목표를 위해 악착같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다. 남들이 하니까 공부를 하였고 겸손하지 못했다. 그런데 막상 20살이 되어 대학을 오니 그 조금 공부한 것도 보상을 받고 싶었는지 막장 라이프가 시작된다.

나의 대학시절은 4학년+α 동안 술, 연애, 게임, 축구로 도배 되어있다. 가장 중요한 공부가 빠져있는 것이 의아할 것이다. 근데 사실이다.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 시험기간 혹은 잦은 결심으로 인해 짧게 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점은 높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공부해도 이렇게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나를 거만하게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 결석도 잦아지고 매일매일 12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4학년에 가정형편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돈에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도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내 스스로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착각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졸업할 나이가 다가왔지만 흔히 말하는 수험생활의 고장 노량진을 선택하지 않고 졸업유예를 해 학교에 남아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 이때부터 수험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 나를 움직이게 한 동기

나는 합격한 사람들의 학업계획을 따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 나의 성향과 잘 맞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구체적인 삶을 살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나에 대하여 잘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시험에 대한 낙방과 '왜 나는 이런 와중에도 공부를 안할까'에 대한 고찰로 남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운 적이 있다. 그렇게 진창 울고 다음 날 멀쩡히 일어나니 어젯밤 일이 후회스러웠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나의 행동으로 후회하는 것에는 질렸다. 이젠 그만 후회하고 싶다. 이걸 공부에 활용해보자' 말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인들에게 이번 시험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다녔다. 만약 떨어졌을 경우 또 변명하고 고개 숙여 후회하고 있을 나의 모습을 생각하니 자연스레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창피한 일을 겪었을 때 극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그 기억이 잘 잊혀지지 않는다. 그 창피함 때문에 스터디를 하면서 남의 질문에 회피한 적도 있었고 미리 답과 해설을 보고

설명한 적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 나의 성향을 공부에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창피하기 전에 미리 공부하였고 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주절대지 않으려고 완벽하게 외웠다. 또한 지금 학생회 '한명윤' 학생과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명윤이의 인성적인 부분을 높이 산 부분도 있지만 '신입생과의 생활 속에서 내가 창피하지 않기 위해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이렇게 나는 나의 창피함을 오히려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동기로 환산하였다.

나는 남보다 유능한 타인으로 보이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언뜻 보면 똑똑하게 보일 수 있지만 깊게 파고들면 허점이 많다. 이번에는 이것을 공부에 활용해보기로 했다. 진짜로 내가 남보다 유능한 타인이 되려면 그 분야에서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까지도 더욱 깊게 공부하고 설명하였으며 나만의 공부 비밀 무기들을 몰래 많이 갖추어 나갔다.

3. 해주고 싶은 말

절대로 수험생활을 시작하면서 외적인 걸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지 말길 바란다. 만약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의 취미로 현명하게 풀어야 한다. 나는 금전적인 부분은 과외를 통하여 채웠고 대인관계는 동기와 후배들, 그리고 나를 항상 믿어주는 여자친구를 통하여 만들어 나갔다. 간혹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때는 축구와 게임을 통해 해소해 나갔다. 그러면 온전히 나머지 시간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여러 사람의 합격수기를 읽어 보겠지만 느끼는 바가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서울대생, 카이스트생이 아닌 이상 우리하고 지능의 차이가 크지 않다. 모두 노력의 차이다. 어렸을 적부터 쌓여온 노력의 양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결과의 차이를 만들 뿐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힘든 고통, 사건 없이는 변화를 만들기는 힘들 것이다. 꼭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길 바란다.

출발선이 뒤에 있다고 해서 항상 늦게 도착하는건 아니다. 400m 달리기를 상상해보길 바란다. 출발위치가 더 뒤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같은 거리이고 누가 더 효율적으로 빨리가는가 가 더 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서의 달리기 속도는 결국 노력의 양이고 노력을 해보기 위해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필요하다. 자신의 행동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생각 속에서 주저 앉지말고 자기성찰을 통해 꼭 극복하길 바란다.